

## 부상 터널 지나 명예회복 담금질



### 김상훈·이용규·채종범 등 재활조 광서 "V11 주역되자" 팜방울

KIA 타이거즈의 부상병들이 광서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

2009 챔피언 KIA가 광과 일본에 전지훈련 캠프를 차리고 2연패를 향한 도전을 하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야수조는 일본 미야자키를 찾았고, 광에서는 투수조의 훈련이 전개되고 있다.

조범현 감독의 지휘를 받고 있는 광 캠프에는 '재활조'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KIA는 지난 11일 광 본진의 출발에 앞서 5일 재활조를 광으로 출국시키면서 2010시즌 전지훈련의 스타트를 끊었다.

지난 시즌 부상전력이 있는 투수 서재웅·윤석민은 물론 한국시리즈 7차전 때 허벅지 부상을 당했던 포수 김상훈과 복사뼈 골절로 수술대에 올랐던 외야수 이용규가 재활조로 미리 짐을 풀었다. 따뜻한 곳에서 차근

차근 몸을 만든 뒤 정상적으로 전지훈련을 소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투수들 사이에서 배트를 든 김상훈과 이용규에게 광 캠프의 하루는 특별하다. KIA를 대표하는 두 선수는 부상과 부진으로 힘든 겨울나기를 했다.

든든한 안방마님으로 2009 우승의 주역이던 김상훈은 한국시리즈에서 허벅지 부상을 당하며 일본 챔피언 요미우리와의 한일클럽 챔피언십에서 마스크를 쓰지 못했다. 이후 재활을 하느라 훈련속도가 더뎠다.

이용규는 복사뼈 골절로 전반기 내내 그라운드를 비워야 했고, 시즌 막판에는 극심한 부진으로 자존심을 구겼다. 부상과 부진으로 고전했던 이용규는 12월 '독한 훈련'을 통한 명예회복을 다짐했지만 수술부위가 좋지 않아 결국 재활조에 머물렀다.

힘든 12월을 보낸 두 선수는 광에서 일찌

감치 시즌 준비에 들어가 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포수조 후발대에 포함된 유일한 야수 채종범도 재기를 위한 팜방울을 즐기고 있다. 지난해 시범경기에서 심자인대가 파열돼 시즌을 접어야 했던 채종범은 광 멤버로 방향이 다시 들었다. 1년 가까이 재활을 했던 채종범은 '잃어버린 1년'을 되찾기 위해 광을 기회의 땅으로 삼았다.

광의 날씨도 이들의 훈련을 돕고 있다. 광 현지에는 30도에 육박하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훈련시간만 되면 구름이 끼거나 소나기가 지나가면서 기온이 선선해져 운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한편 3일훈련 1일휴식 일정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 광 선수단은 19일 달콤한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 충전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5일 재활조로 광 캠프에 참가한 KIA 포수 김상훈이 광 파세오 구장에서 배팅연습을 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 KIA, 피트니스센터 빅스포와 스폰서 계약

KIA 타이거즈가 종합 피트니스 센터 빅스포와 18일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 KIA는 선수단 체력증진을 위해 빅스포로부터 피트니스센터 내 헬스

클럽 사우나, 필라방을 이용할 수 있는 1억2천만원 상당의 연간회원권을 지난해와 같이 제공하기로 했다. 스폰서 계약으로 빅스포는 이벤트와

각종 광고시 구단 로고와 선수 사진을 사용할 수 있고, 연 1회 선수 팬사인회를 개최할 수 있다.

KIA와 BIGSPON은 지난 2007년부터 스폰서십을 유지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봅슬레이 대표팀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4인승 종목에 이어 2인승 종목 출전권을 확보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오스트리아 2009-2010 국제봅슬레이연맹(FIBT) 유럽컵 4인승 경기에 출전한 봅슬레이 한국 대표팀. /연합뉴스

## 한국판 '쿨러닝' 봅슬레이 2인승도 밴쿠버 간다

### 4인승 이어 올림픽 출전권 확보

'쿨러닝' 봅슬레이 대표팀이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4인승 종목에 이어 2인승 종목 출전권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봅슬레이 대표팀을 이끄는 강광배(37·강원도청)는 18일(한국시간) "국제봅슬레이연맹(FIBT) 사무총장으로 부터 한국이 동계올림픽 2인승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2인승 세계랭킹이 19위였지만 상위권 국가 중에서 세 나라가 올림픽에 나서지 못하게 돼 출전권을 얻게 됐다"라고 밝혔다.

루마니아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각각 두 팀씩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지만 이들 세 나라가 두 팀 가운데 한 팀이 세계랭킹 50위에 들지 못하면서 출전권을 놓고 다투고 있었다.

이에 따라 2인승 종목에서 세계랭킹 18위와 19위로 동계올림픽 자격진출이 무산될뻔했던 일본과 한국은 극적으로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행운을 차지했다. 동계올림픽 출전권은 각 종목 17위까지 주어진다.

특히 대표팀은 지난해 연말 4인승 종목 출전권을 일찌감치 차지한데 이어 사실상 포기했던 2인승 출전권을 얻으면서 한국 동계스포츠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더불어 지난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부터 2006 토리노 대회까지 투지와 스킨레터 선수로 변신을 거듭하며 3회 연속 동계올림픽에 출전했던 강광배는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봅슬레이 전 종목에 출전하게 돼 4회 연속 동계올림픽 출전의 기쁨을 재확인했다.

강광배는 "4인승만 출전하는 것보다 2인승까지 출전하면 동계올림픽 기간에 연습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아시아 무대에서 동계올림픽에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출전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계올림픽 무대에서 한국 썰매 종목의 자존심을 살리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09-2010 FIBT 유럽컵 일정을 모두 마친 대표팀은 20일 귀국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나서 26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로 이동해 동계올림픽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 '탱크' 최경주 비거리 늘었는데...

올 시즌 첫 출전 소니오픈 성적은 4언더파 공동 39위 라이언 파머 15언더파 우승

한국남자골프의 간판 최경주(40)가 올 시즌 처음 출전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오픈에서 중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최경주는 1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와이알래이 골프장(파70.7천68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버디 3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2언더파 68타를 적어냈다.

합계 4언더파 276타를 친 최경주는 공동 39위에 그쳤지만 지난 해 괴렸던 허리 근육 통증에서 벗어나면서 다음 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했다.

우승컵은 15언더파 265타를 친 라이언 파머(미국)에게 돌아갔다.

파머는 로버트 앨런비(호주·14언더파 266타)와 접전을 펼치다 18번홀(파5)에서 버디를 낚아 1타차로 승리, 통산 세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최경주는 이번 대회에서 310야드에 육박하는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를

기록했지만 페어웨이 안착률이 50%, 그린 적중률이 65%로 떨어진 것이 아쉬웠다.

전반에 버디 1개, 보기 1개로 타수를 줄이지 못하던 최경주는 후반에는 보기 없이 버디 2개를 낚아 깔끔하게 마지막 라운드를 마무리했다.

최경주는 "스코어는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경기 내용이 좋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이번 주는 쉬고 28일 개막하는 샌디에이고 오픈에 출전해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최경주는 "드라이버와 공을 바꾸면서 비거리가 좀 늘었다"면서도 "새로 바뀐 그루브 규정 때문에 공을 그린 위에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더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이저 챔피언 양용은(38)은 버디 5개를 잡았지만 보기도 5개를 쏟아내면서 합계 2언더파 278타로 공동 46위에 머물렀다. 6번홀까지 2타를 줄여 나가던 양용은은 7.8.9번홀에서 연속 보기를 적어냈고 후반들어서는 버디와 보기를 번갈아 하면서 기복이 심한 하루를 보냈다.

재미교포 나상욱(27·타이틀리스트)은 버디 4개를 보기 4개로 맞바꾸며 타수를 줄이지 못해 합계 1언더파 279타로 공동 52위에 그쳐 3년 연속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 양용은 작년 수입 73억

### 세계 골프 선수중 38위...우즈 1억2천만달러 1위



메이저 대회 챔피언인 양용은(38·사진)이 작년 647만달러(73억원)를 번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골프전문지 '골프다이제스트'는 18일(한국시간) 인터넷판에서 작년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골프 선수 50명의 순위를 발표했다.

미국 메이저 골프 대회인 PGA투어를 제패한 양용은은 작년 한 해 동안 상금 397만달러(45억원), 보너스와 광고료 등 부수입으로 250만달러(28억원)를 벌었다.

세계 골프선수 중 38번째 많은 수입으

로 양용은이 수입 랭킹 50위 안에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명성에 걸맞게 가장 많은 돈을 벌었다.

우즈는 지난해 PGA 투어에서 6차례나 정상에 오르며 상금 2천100만달러에 광고료 등 부수입으로 1억900만달러를 추가해 총 1억2천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우즈는 1996년 프로로 전향하고서 작년까지 14년 동안 10억800만달러를 벌어들여 골프 선수로는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2위 필 미켈슨은 작년 4천100만달러로 우즈의 3분의 1에 그쳤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25·나이키골프)은 작년 PGA에서 한 번도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했지만 광고료 등을 합해 1천만달러를 벌며 17위를 차지했다.

일본골프의 슈퍼스타 이시카와 료는 565만달러로 양용은에 뒤진 42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 안간힘 썼지만... '러시안 뷰티' 샤라 1회전 탈락

'러시안 뷰티' 마리아 샤라포바가 18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마리아 키릴렌코(러시아)와의 1회전 대결에서 공을 받아치고 있다. 부상에서 회복해 명예회복을 노렸던 샤라포바는 대회 1회전에서 키릴렌코에게 1-2로 져 2003년 프랑스오픈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1회전에서 탈락했다. /연합뉴스